

골롬반 선교

2026년 여름·가을호 vol.134

“제 이름은 골롬반입니다”

특
집
현 하롤드 대주교 50주기
하느님의 종, 안 파트리치오 몬시뇰



품종명이 “골롬반”인 무궁화이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골롬반 선교

2026년 여름·가을호 vol.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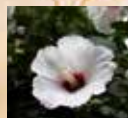
- 03 마음을 여는 글 | 김종근 가을,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 04 현 하롤드 대주교 50주기 | 옥현진 빛을 들고 온 선교사
- 08 선교 그리고 순교 | 편집실 순교자를 증언하는 은총
- 10 골롬반 순교자 | 이기창 모든 건 게임의 일부; 안 파트리치오 몬시뇰
- 12 필리핀 이야기 | 노혜인
편리함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 14 생물다양성 보호와 회복 | 다니엘 하딩 공동의 집 돌보기
- 16 대만 이야기 | 석진욱 좋은 안녕,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
- 18 권은정이 만난 선교사 | 권은정 나의 벗 예수님; 이어돈 미카엘 신부 편
- 22 신학원 | 광범주 첫걸음을 내디디며
- 24 젊은, 그대 | 솔랑해 카타리나 우리는 희망하는 젊은이들입니다
- 26 추모 | 옥 벨라도 전 고르넬리오 신부의 삶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 26 함께하는 여정 | 유정희 우리 가족 곁에 골롬반 선교회
- 30 후원회
- 32 골롬반 소식



편집실 Tel. 02-927-2705
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s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표지: 해마다 7~9월, 본부 정원에 피는 무궁화(백색계 홍단심)다. 이 꽃을 개발한 심경구 박사(무궁화와 참나리연구소장)는 2009년에 이 무궁화에 “골롬반”이라는 품종명을 부여했다. 꽃잎의 하얀색, 중앙의 붉은색, 초록색 잎이 신앙인의 적색, 백색, 녹색 순교 정신을 담고 있는 듯하다.

주소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발행일 2026년 9월 1일 | 발행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발행인 권세우 신부 | 편집장 김종근 신부 | 부편집장 동리춘 신부 | 편집위원 권은정, 권숙정, 이기창 | 취재편집 김소영 | 디자인 아이디퍼런스 | 인쇄 서울프로아트

| 마음을 여는 글 |

가을,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김종근 도밍고 신부 · 편집장

“이번 여름, 안녕하셨습니까?”

요즈음 자주 하고, 자주 듣는 인사말입니다. 조금씩 불어오고 있는 시원한 바람이 힘들었던 지난여름의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식혀 주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말은 살이 쪼다는 이 계절에 우리는 우리의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을 세 가지 색의 순교자들로 크게 나누고 있지요. 첫째로는 베드로 사도, 김대건 신부와 같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명한 적색 순교자입니다. 둘째는 골롬반 성인과 최양업 신부처럼 박해를 당하면서도 평생 땀 흘려 복음을 전파했던 백색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라”(마르 16,15)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녹색 순교자입니다.

1933년에 우리 회의 선교사제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을 겪으며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였고, 한국에서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도무지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 시절에 우리와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골롬반선교』는 이러했던 순교자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순교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순교자들의 땀과 피로 이루어진 한국 교회는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보내며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보여 준 복음 선포 정신을 본받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7~9월, 본부 마당을 산책하며 전쟁순교자비 가까이에 핀 무궁화를 봅니다. 실제로 “골롬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품종입니다. 하얀 꽃잎, 가운데 붉은 단심(丹心), 진녹색 잎을 가진 무궁화 “골롬반”이 세 가지 순교를 말하는 듯합니다. 요란했던 여름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력을 힘껏 피워 올린 꽃 골롬반처럼, 여러분 모두도 활짝 피고 빛나시길 바랍니다. ✠

빛을 들고 온 선교사, 현 하롤드 대주교

육현진 시몬 대주교 · 광주대교구장



현 하롤드(Harold Henry, 玄) 대주교님 선종 50주년을 맞이하며 떠오르는 첫 기억은 현 대주교님(Archbishop)을 현대 주교님(Modern Bishop)으로 한

동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렸을 땐 늘 현 대주교님을 눈이 크신 외국인 주교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교구사 안에 크게 자리한 그분의 삶을 공부하면서 한

국과 한국 교회를 무척 사랑하셨던 분임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현 대주교님은 열악한 광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본국에서 여러 차례 모금 활동을 펼치셨다. 그때마다 한국의 가난함보다 한국 사람의 선함을 강조하시며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크게 발전할 나라라고 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맞았다. 사실 현 대주교님의 열정과 노력을 오늘날의 교구장들에게 똑같이 수행하라 하면 모두 두 손 번쩍 들지 않을까 싶다.

현 하롤드 대주교는 광주대교구와 제주교구에서 교구장으로 일하며 교구민들의 큰 사랑을 받은 선교사였다.



나주 본당 주임 신부로 사목했을 당시(1935~1941)



한국에 레지오를 도입한 현 대주교가 한공렬 대주교와 레지오 교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을 때

현 대주교님은 당신의 책 『동방의 빛』에서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본당을 떠나야 했을 때를 회고하시며 드디어 선교사로서 한국에 적응하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구절은 감동적이다. 본당신부님을 붙잡고 울며 슬퍼하던 어린이들을 달래며 당신의 선교사 여정을 울퉁불퉁한 자갈길에 비유한 대목이 참으로 아름답게 그려졌다. 말 설고 물설기만 한 낯선 한국 문화에서 신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하나 되는 순간이 바로 선교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아닐까.

사실 현 대주교님은 본당신부 임무를 수행할 때 김치 먹고 들어온 신자의 고백성사를 듣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히셨다. 그런데 나중에 교구장이 되시고 한국인 사제들이 교구청을 방문하면 꼭 식사 중에 김치를 내오라고 하시며 한국 사제들을 배려하셨다.

1962년 광주 대건신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며 일꾼들을

격려하시던 사진 속의 밝은 모습은 여전히 또렷하다. 미래의 기반이 되는 사제 양성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방인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 설립에 최선을 다하시고자 건축비 마련을 위해 본국까지 가는 먼 여정길을 다니시고, 신학교 운영비를 위해 교구 신자들을 독려하시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이셨다.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 수도회의 진출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살레시오 수도회를 초대하셨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위해 성 요한 수도회를 교구에 초대하셨으며 영성 교육을 위해 예수 고난 수도회 진출이 성사되도록 노력하시는 등 현 대주교님은 교구의 미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사목하셨다. 그리고 언제나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몸소 보여주셨다. 수도회와 교구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어 서로 도와야 하는 한 가족임을 인식하고 계셨다. 그래서 수도회가 땅이나 집이 필요하면 교구의 땅도 수도회를 위해 기꺼이 나누셨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참여했을 때 성 요한 23세 교황과 함께(왼쪽에서 세 번째가 현 하롤드 대주교)

늘 한국을 사랑하셨던 현 대주교님! 생전에 커피를 좋아하셨는데 사람들이 “주교님 그렇게 커피 많이 드시면 잠 못 주무십니다.”라고 말하면 “그거 미신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에 웃음이 절로 지어진다.

광주대교구 성장에 기초를 놓아 주신 현 대주교님 감사드립니다. 대주교님의 열정으로 광주대교구도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젠 광주대교구도 142개 본당에 70여 개의 공소, 309명의 사제와 36만 6천여 명의 신자로 성장했습니다. 신앙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셨던 현 대주교님의 땀방울이 결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에서 지켜보시며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현 대주교님 고맙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신자들과 자주 만났던 현 하롤드 대주교



민 디오니시오 신부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역사실



1933년 한국에 처음 파견된 골롬반 사제 10명 중 1명은 미국 사람이었어요. 바로 현 하롤드 신부님(훗날 대주교)입니다. 1901년 미네소타의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12살에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골롬반회에 입회할 당시 미국에는 골롬반 신학교가 없어 아일랜드 달간에 가서 공부 하였고, 1932년 미국에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현 신부님은 1934년에 노안 본당 보좌 신부로 발령받았고 35년부터 41년까지 나주 본당에서 주임으로 사목했어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현 신부님은 일제에 의해 추방당했고, 미군 군종 신부로 일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왔으나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교구장 안 파트리치오 몬시뇰이 전쟁 중에 순교하여 현 주교님은 교구 책임자가 됩니다.

저는 1969년에 한국에 왔는데, 동기 신부와 아일랜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한국행 ‘노스웨스트 항공사’ 비행기를 탔어요. 우리를 본 항공사 직원은 현 주교님의 신부님들이라며, 주교님과 잘 아는 사이인지 묻더라고요. “네, 네! 그럼요.” 그러자 직원은 비즈니스석으로 바꾸어 주더군요. 사실은 주교님을 잘 모르는 새 사제들이었는데, 한국에 오기 전부터 주교님 덕을 보았어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현 주교님은 목포 산정동 원요한 신부님에게 아일랜드에 가서 레지오 마

리아를 배워 오라고 하였고, 이후 레지오는 한국 교회가 크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주교님은 동마다 1~2개씩 본당이 있어야 한다며 성당 짓는 데 힘쓰셨어요. “10년 뒤를 위해 일하는 주교”라는 사람들의 말은 맞았어요. 머지않아 본당마다 신자들이 넘쳐나게 됐지요. 일, 일, 정말 일을 많이 한 주교님입니다.

1971년, 대주교님은 광주대교구장을 사임하십니다. 한국인 교구장이 와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하고, 제주교구를 설립하기 위해서였어요. 제주는 규모가 작았기에 바티칸을 찾아 대화하였고, 지목구로 설정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 제주지목구장으로 광주에서처럼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젊어서부터 고생했기 때문인지 건강이 그리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아침, 미사를 앞두고 기도하시던 중에 심장마비로 선종하셨습니다. 1976년 3월 1일이었어요.

사제들이 무슨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언제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믿어주셨어요. 젊은 사제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맞아주셨고요. 손재주가 좋아서 뭐든 잘 고치셨는데, 제가 교구청에 들를 때 자동차 아래에 누워 수리하시던 교구장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떠나신 지 50년, 하늘 나라에서도 여전히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

순교자를 증언하는 은총

인터뷰·정리 김소영 본지 기자



2008년 순교자들의 유해를 대전 가톨릭 신학교 내 성직자 묘원에 안장하고 순교 기념비를 봉헌한 날. 유흥식 추기경(당시 대전 교구장)과 함께한 김윤배 판크라시오 선생

“판크라시오! 일어나렴. 성당 갈 시간이야.”

새벽 다섯 시. 여덟 살 판크라시오는 어머니가 데워 놓으신 물로 세수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미사 복사에 늦지 않으려고 3킬로미터 길을 매일 뛰어다녔다. 그래도 좋았다. 성당이 좋고 신부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았다. 더 어렸을 때는 어머니 등에 업혀 성당에 들어서면 감실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이것이 빛이다.’ 했던 생각이 여든일곱으로 사는 지금도 또렷하다. 성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심어진 그 빛은 평생 그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홀로 교회사를 공부했고, 평생 발로 뛰며 순교자들의 행적을 찾아 기록하여

교회에 증언한 김윤배 판크라시오 선생,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나섰다가 순교자를 닮아 버린 그이다.

열 살 때 전쟁이 났다. 고향 공세리에도 북한군이 들이닥쳤다. 공세리 본당 벨토 신부¹가 피랍되기 전날에도 미사 복사를 썼다. “제의방을 정리하고 열쇠를 드리러 가는데, 회장님과 어른들이 신부님께 피난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신부님은 ‘예, 가야지요. 그런데 신자들이 안 가면 갈 수 없어요. 목자가 양을 두고 떠날 수 없지요.’ 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때 그대로 내 귓전에 남아 있어요.”

열여섯에 대구에 가서 교구청 급사로 6년을 일했다. 그때 교황 사절로 대구를 방문한 구인란 토마스 주교의 방에서 난롯불을 지펴드리며 대화한 기억이 있다. 당시 그가 만난 유일한 골롬반 선교사였다. 그때는 몰랐는데, 벨토 신부와 구 주교가 전쟁 포로로 끌려가 같이 고초를 겪었던 것을 순교자 행적을 조사하다가 알게 되었다. 또 어찌 알았겠는가. 훗날 자신이 골롬반 순교자들을 교회에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될 줄을.

가정을 이루고 생업에 전념하면서도 벨토 신부를 잊은 적은 없다. 그러다가 공세리 본당사 편찬 작업에 참여하면서, 벨토 신부를 비롯한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책상에만 앉아 있지 않았다. 관련 장소를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

고 자료를 얻으러 전국을 다녔다. 순교자들의 행적을 조사하면서 만난 최복련 아네스 선생에게서 1950년 9월 23일과 26일 사이, 대전 목동에서 학살당한 골롬반 순교자들²에 대한 증언을 듣게 되었다. 그녀 외에도 많은 이가 자기가 경험한 것과 목격한 것, 전해 들은 이야기를 김윤배 선생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꼼꼼히 기록하였다. 찢어 찢어 흩어져 있던 점과 같은 기억 조각이 선으로 이어져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는 경험을 그는 하게 된다.

대학살 희생자들의 유해를 목동에서 대전 사정공원으로 이장하던 날, 김윤배 선생도 현장에 갔다. “우리 신부님들은 순교자이니 사정공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마음으로 모래 섞인 분골을 담아 왔어요.” 그는 집 마당 성모상 뒤편에 유해를 모시고 교회에 알렸다. 본당 몇 곳에서 일부를 모셔 갔다. 12년을 집에서 모신 끝에, 2008년 유흥식 추기경(당시 대전교구장)이 대전 가톨릭대학교 성직자 묘역에 순교자비를 세우고 유해를 모셨다. “천 분의 일밖에 안 되는 조각이지요. 그런데 성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미소한 조각에도 계시고 큰 조각에도 계시잖아요. 우리 순교자들도 그 작은 데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지난해, 한국전쟁 중 순교한 골롬반 사제

들의 후손들이 한국을 찾았을 때, 그는 대전에서 그들을 맞았다. “제가 한 일은 작은 일이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온 후손들을 만나서 신부님들이 순교한 곳을 찾아 미사 드리고 순교비 앞에서 함께 기도하니 감사했고, 보람을 느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만 생각했지요. 택시 일만 했으면 돈은 벌었겠지만, 넉넉하지 못해도 아들이 사제³가 되었고 이렇게 순교자들을 기억할 수 있으니,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책상에 꽂힌 자료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저 기록만 정리하면 하늘 나라에 가도 걱정이 없어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느님께서 저를 안 데려가신 이유가 이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신이 남아 있는 동안은 그 명에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바람은, 내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 교황님이 오셔서 전쟁 순교자들의 시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인데, 그 마음으로 매일 기도합니다.” 그가 가는 길에 빛을 밝히시어 숨어 있던 것을 드러내신 주님께서 그와 우리 모두의 바람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한다. ✠

김윤배 선생은 골롬반 순교자들의 후손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순교자들이 희생 당했던 장소에 가서 당시를 설명했다.(2025년, 거룩한 말씀의 회 본원, 대전 목동)

- 1 조제프 벨토 신부(1901-1951, 한국 이름 오펜도 요셉):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으로 1927년 한국에 파견되었다. 1950년 3월 대전지목구 공세리 본당 주임으로 부임하였으나 그해 7월 8일 북한군에 피랍되어 죽음의 행진을 겪다가 1951년 1월 6일 북한에서 순교했다.
- 2 골롬반회 전쟁 순교자 안 파트리치오 몬시뇰, 고 토마스 신부, 오 요한 신부다. 목포에서 사목하던 중 피랍되어 대전 목동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순교했다.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다.
- 3 골롬반회 지원사제로 칠레에서 선교했던 대전교구 김종원 비오 신부다.



모든 건 게임의 일부

하느님의 종 안 파트리치오 몬시놀

이기창 스테파노

언론사 기자로 33년간 일하며 앵커, 해외 특파원, 논설위원을 지냈다. 세계 곳곳 분쟁과 재난 지역을 다니며 취재했다.



왼쪽: 한국으로 발령받았을 당시(1936~37년) 오른쪽: 올봄, 시카고 교구 먼더라인 신학교에서 안 몬시놀을 기리는 행사가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상습범(jail bird)'에 비유했다.

제4대 광주교구장 패트릭 브레넌(한국 이름 안 파트리치오, 이하 패트릭) 몬시놀은 6·25 전쟁 발발 직후 공산군에게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갇혔다. 같은 방에 들어온 미군 포로 알렉산더 마카루미 중위에게 “나는 감옥을 드나드는 상습범 생활에 슬슬 익숙해지고 있네.”라고 말했다. 태평양전쟁 때 일제에 의해 투옥됐으

니 이번이 두 번째 '여행'이라고 농담도 건넸다. 마치 아버지와 같은 목소리로 “맥, 괜찮다네.” 하며 마카루미를 안심시켰다. 감옥 창문 너머로 새들이 지저귀면 “노래하는 새는 희망의 전령”이라고 사람들을 위로했다. 절망스러운 나날을 겪으면서 그가 보여준 친절과 배려가 “우리의 사기를 500%나 끌어올렸다!”고 마카루미 중위는 그의 수기에 썼다. 몬시놀은 이처럼 감옥에 가는 것도 여행처럼 여기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미소와

유머를 잃지 않은 이, 절망 속에서도 다른 이를 위로하고 격려한 인물이었다.

월 23~26일(추정) 학살되었다.

그는 고난을 자처했다. 1901년생인 패트릭은 1928년 사제로 서품돼 8년간 미국 시카고 교구에서 일했다. 시카고의 가장 근사한 성당들에서 사목하며 동료 신부와 신자들에게 한결같이 사랑받았다고 기록은 전한다. 그렇게 교구 사제로서 그곳에 머물렀다면 상습범처럼 감옥을 드나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1936년 시카고 교구를 떠나 성골롬반외방선교회에 입회했다. 어느 날 미사를 집전한 골롬반회 사제의 님아서 해진 제의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한다. 보다 가난한 곳, 더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가야 한다는 사명을, 그는 시카고보다 더 사랑한 것이다.

“이 모든 건 경기의 일부야.”(It's all part of the game.)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몬시놀의 되뇌곤 하던 말이다. 미국 골롬반회에 목포 잔류 결정을 알리는 마지막 편지에도 “다 게임의 일부입니다.”라고 썼다. 하느님의 거대한 섭리 아래 펼쳐지는 이 위대한 게임에서 그는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꺾이지 않았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끝내 목숨을 바치는 것조차 그에겐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게임의 일부였을 뿐이다.

하느님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그가 벌인 경기의 결과는 점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광주 교구와 한국 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그가 교구장으로 일하다 체포된 목포 산정동성당은 순교자기념성당으로서 그와, 당시 함께 체포돼 대전에서 숨진 토머스 쿠삭, 존 오브라이언 신부를 기리고 있다. 광주가톨릭대학교는 '몬시놀 패트릭 브레넌 신학교'로 명명됐다. 그는 한국 천주교회 근현대 신앙의 증인 하느님의 종 81위로 시복 심사 중에 있다. 그가 졸업한 시카고 먼더라인 신학교에서도 최근 그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머지않아 81위의 시복시성이 이뤄지면 그의 삶과 신앙은 더욱 조명받을 것이다. 순교로 맺은 위대한 게임의 이런 큰 그림을 그는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

이듬해인 1937년 한국에 입국한 그는 원주 원동 본당 주임,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으로 투옥 후 미국으로 추방, 2차세계대전 군종신부, 1946년 한국 재입국, 1947년 골롬반 선교회 아시아 총지부장 등으로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여정을 걷는다. 그리고 1949년 11월 광주교구장으로 서임돼 한국으로 돌아왔다. 1950년 6·25 전쟁이 나자 그는 피신하지 않고 당시 교구청이 있던 목포 산정동성당에 있다가 공산군에게 체포됐다. 광주교도소를 거쳐 공산군 수용시설로 쓰인 대전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갇혀 혹독한 고초를 겪다 그해 9



제주 신성여중 1대 이사장이었던 안 몬시놀이 학교에 방문했을 때(1949년)를 컬러 사진으로 변환했다. 몬시놀의 오른쪽은 나 토마스 신부, 왼쪽은 손 파트리치오 신부, 최정숙 베아트릭스 선생이다.

편리함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노혜인 안나 평신도선교사

성공률반외방선교회, 2011년 필리핀으로 파견되어 빈민들을 위한 활동을 했다. 2019년부터는 한국에서 평신도선교사 코디네이터를 하며 지구 환경을 위한 연대 활동을 펼쳤으며, 작년에 필리핀으로 돌아가 마닐라의 말라떼 성당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며 다양한 사회사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마닐라 말라떼 성당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서 방문자들에게 나눠 주는 식사를 담고 있는 필자. 낡은 플라스틱 대신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에 담긴 밥과 반찬이 더 맛있고 든든하게 전달되길 바라며.

우리 마닐라 말라떼 성당은 '생태 성당'으로 환경 보호, 생태 영성, 지속 가능한 공동체 실천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 가치를 살아내는 선교 현장은 늘 선택의 자리이다. 교도소 수감자들을 방문하기 위해 봉사자들과 도시락을 준비하던 날, 우리는 도시락 용기 하나를 두고 한참을 고민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도시락통에 밥과 국물 없는 반찬을 담자고 제안했지만, 교도소 반입 검사와 운반 편의성 때문에 투명 플라스틱 용기를 쓰자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봉사자 부족, 준비 시간 압박까지 더해져 도시락통은 종이로 하되, 반찬은 비닐에 담기로 했다. 그 날 나는 깨달았다. 생태적 죄는 거대한 악의 모습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대신 '이번만', '어쩔 수 없어서', '편하니까'라는 말 속에서 조용히 우리 손에 주어진다.

내가 일하는 무료 급식소에서는 오랫동안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 왔다. 어떤 분들은 오래 쓴 플라스틱 도시락통을 테이프로 붙여 사용했고, 일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아 가는 분도 있었다. 환경오염 문제도 있지만, 뜨거운 음식이 플라스틱에 담겨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은인의 도움으로 스테인리스 도시락통 100개를 마련했다.

이 통에 담은 음식을 안전하게 드실 분들을 떠올리며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다. 모든 변화가 그렇듯이 처음에는 불편하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플라스틱 도시락통 하나를 덜 사용하는 일이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몸뿐 아니라 바다와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피조물을 보호하며, 결국 지구를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조금씩 공감해 주셨다.

얼마 전 성당 근처 도로에 있던 600그루가 넘는 가로수가 잘려 나간 사건이 있었다. 대기를 정화하고 시민들에게 그늘을 주며, 노숙인들에게는 쉼 자리를 내주던 생명들이 밀동만 남긴 채 쓰러져 있었다. 이는 교통 개선을 명분으로 추진된 고가도로 건설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수십 년 된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모습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생명보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생태적 죄는 개인 일상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구조와 정책, 집단의 결정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었다.

교회는 이 사건을 "마닐라 시민을 향한 생태적 폭력"이라 부르며, 고요하지만 단호한 언어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지난 6월 24일 마닐라의 날에 우리 말라떼

성당 신자들은 환경단체들과 함께 잘려 나간 나무들과 아직 번호표를 달고 벌목을 기다리는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십자가의 길'을 바쳤다. 예수님의 수난을 기억하는 기도는 상처 입은 도시를 위한 기도이자 사라진 생명에 대한 애도였다. 그날 나는 생명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함께 지키는 신앙의 실천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매일매일이 고민이다.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감자 도시락 준비 과정의 고민도,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베어진 나무들 앞에서의 기도도, 급식소에서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으로 바꾼 작은 변화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편리함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비록 완전한 답을 찾지 못하고 때로는 타협에 흔들릴지라도, 불편을 감수하고 생명을 향한 작은 선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자 걸어야 할 사랑의 길이라고 믿는다. 잘려 나간 자리에도 새순이 돋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작은 실천들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기를 바라며, 오늘도 나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간다.

말라떼 본당의 주임 주다두 제노비아(골로반회) 신부가 나무들이 잘려 나간 자리에서 신자, 시민, 환경운동가들과 기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의 집 돌보기

다니엘 하딩 신부
Daniel Harding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호주 출신이며 1994년 사제품을 받았다. 현재 칠레 산티아고에서 선교하고 있다.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측량선 비글호에 승선하여 세계 탐험을 떠났다. 1834년에는 칠레의 '세로 라 캄파나'를 찾아갔다. 산티아고에서 100km 북쪽에 있는 산이다. 다윈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라 캄파나

정상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시간이 그토록 짧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태평양과 안데스산맥에 둘러싸인 칠레가 광활한 평원처럼 밟아래 펼쳐져 있었다. 이 광경은 그 자체로 감탄이었고, 라 캄파나가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상념은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을 더 깊게 해주었다.” 다윈은 그곳이 지닌 풍부한 생물다양성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다윈이 다녀간 지 192년이 지난 후, 골롬반 선교사들이 라 캄파나를 비롯해 중부 지대에 있는 또 다른 생물다양성 핵심 지역 여러 곳을 다녀왔다. 하느님의 창조 영성을 더 잘 이해하고, 지구의 연약해져 가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회복할 소명을 견고하게 다져 자기의 선교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다. 그곳은 다양한 포유류, 조류, 균류,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생물종이 가속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종의 감소와 멸종 위기를 맞고 있었다. 점점 악화하는 생

골롬반 선교사들은 『찬미받으소서』의 메시지를 자신의 사목지에서 실천하는 활동을 펼친다. 이날은 생물다양성의 보고 안데스산맥 리오 클라리오 국립공원을 찾았다. (왼쪽부터) 골롬반회 마이클 하우 신부, 다니엘 하딩 신부, 칠레의 교구 사제

태 위기 속에서 골롬반회는 생태적 회심을 촉구한다. 우리가 사목하는 곳에서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를 실천하는 일, 곧 하느님의 창조 영성을 일상 안에서 가시화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을 앞순위에 두고 있다.

산티아고 대학교의 기후학자 라울 코르데로 교수는 말한다. “남아메리카 남부에서 극심한 폭염 발생 일수가 1980년대 이후 세 배 증가했다. 칠레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더 빈번해지고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하고, 더 극단적 더 파괴적이며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기후변화, 가뭄, 토지 이용 방식 변화, 단일 수종 플랜테이션 운영 등이 원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해양 학자들도 입을 모은다. 기후변화는 연안의 해수면 온도를 상승시켰다. 최근 여름철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 기록보다 2~3도 높았다. 이렇게 되면, 섬세한 해안 생물다양성이 불안정해지고, 바다 폭풍을 자주 발생시키며, 따뜻한 바다에 사는 생물종 유입을 초래한다. 칠레 가톨릭 대학교 과학자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칠레까지 이어지는 안데스산맥의 25,000개 빙하가 “매년 0.7미터씩 녹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 35% 더 빠른 속도”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지구를 돌보는 구체적 실천 활동을 본당 생활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옮기고, 지역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방향도 그렇게 변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 우리는 수도 산티아고와 칠레 북부에 있는 골롬반 본당 두 곳에서 사목 활동가 75명과 신자들과 함께 “공동의 집 돌보기”를 주제로 하루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하느님

* 창조 시기: 가톨릭 교회는 매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인 9월 1일부터 10월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까지를 창조 시기로 지내며, 다른 그리스도교인들과 함께 하느님의 창조 질서 보전과 회복을 위한 실천을 찾고, 기도하고 있다.



골롬반 신학생 리디오 망가오 주니어(노란 모자)는 칠레에서 선교 실습을 하면서 〈물을 위한 행진〉에 참여했다. 그가 손에 든 천에는 스페인어로 “생물다양성 보호와 복원”이라고 적혀 있다.

의 창조 영성과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회복을 전례-교리-피정-모임-양성 과정 등 모든 본당 활동에 통합할 영감을 얻었다. 그리고 신자들은 자신의 본당에서 올해 창조 시기*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동기를 갖게 되었다.

“모든 피조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사랑과 존경으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은 이 가족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생물종들을 특별히 보살피면서 보호 계획과 전략을 개발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종들을 철저히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42항)

좋은 안녕,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

석진욱 안토니오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17년 사제수품 후 그해 대만으로 파견되어 신주교구의 본당에서 사목하면서 이주민을 동반하는 활동도 하였다. 올해 필리핀에 있는 골롬반회 국제신학원의 부원장으로 발령받아 올여름, 첫 선교지 대만을 떠났다.



신자들과 지역 축제에 참여했을 때 원주민 전통 옷을 입고

대만을 떠날 준비를 하며 자주 들었던 노래가 있다. 이별이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안녕’이 될 수 있다고 노래하는 곡이다. 대만과의 인연을 정리하는 내 마음이 꼭 그러했다. 잘 떠나고 싶었다. 잘 마무리하고 싶었다.

나와 대만과 인연은 2012년에 시작되었다. 신학생 때 첫 해외선교 발령을 받고 2년을 대만에서 보냈고, 2017년 사제수품을 받고 다시 파견되어 9년을 사목했다. 그중 마지막 4년은 신주교구가 관할하는 타오위안 지역의 성 미카엘 본당에서 주임신부로 살았다.

송별 미사 주제를 “다 이루어졌다.”(요한 19,30)로 정했다. 감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빌린 것은 내가 완벽한 사목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서툰 중국어로 더듬더듬 강론을 준비하던 밤들, 마음만큼 닿지 못했던 술한 순간들이 먼저 떠올랐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완벽한 성취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에 끝까지 충실했다는 고백이라고 믿는다.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다.



성탄절 행사 때 교우들에게 한국 트로트를 알려주고 함께 불렀다고.



대만 골롬반회 선교사들과 함께한 송별 미사 후

송별회에서 한 청년이 다가왔다. 내가 신학생 시절 처음 대만에 갔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나는 청년의 혼인성사를 주례했다. 그날 그가 웃으며 말했다. “신부님, 제 장례미사도 꼭 와서 해주세요.” 농담처럼 건넨 말인데, 그만 눈물이 나왔다.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 달라고 청하는 것, 사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한마디가 다 말해주고 있었다.

대만에서 보낸 11년은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었다. 내가 무언가를 주러 갔다고 생각하였지만, 정작 더 많이 받은 것은 나였다. 부족한 이방인 사제를 신자들은

가족처럼 품어주었고,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나를 가르쳤다.

이제 새로운 부르심 앞에 서 있다.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나의 자리일 것이다. 그곳에서도 나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또다시 최선을 다하는 사목을 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그곳을 떠나는 날에도 오늘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참 좋은 안녕이었다고. ✠

도시에서 나와 사는 원주민 신자들의 고향을 찾아가 마을 주민과 함께 신자 집에서 미사를 드린 날



나의 벗 예수님

이어돈 미카엘 신부 편

인터뷰·권은정 루이제

전문 인터뷰어이자 번역가, 작가이다. 신문사 해외 통신원, 국무총리실 홍보비서관을 했다. 쓴 책으로는 『윤공희 대주교의 북한 교회 이야기』, 『순교자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 『엠마우스 천노엘 신부의 이야기』 등이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양의 냄새가 나는” 사제가 되라고 하셨다. 실제로 이어돈(Michael Riordan, 마이클 리어던) 신부는 사제가 되기 전부터 양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던 터였다. 다른 동물과도 친했다. 수의사였기 때문이다. 1978년 1월 제주도에 왔을 때 마이클 리

어던은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수의사였다. 그때 한국으로 온 사연은 좋으신 우리 하느님의 유머 코드로 해석해야 정확할 것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런던행 비행기 티켓을 구하기 위



사제가 되기 전 제주에서 3년 가까이 봉사했을 때

한 플랜에서 비롯되었다.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토박이인 그는 대학을 다니면서 럭비팀 활동도 하였다. 학생들은 아일랜드와 영국을 오가며 친선 경기를 자주 했는데 그들은 럭비만큼이나 술도 아주 좋아했다. 졸업반이던 해에 런던에서 또 만나기로 했지만, 비행기표를 살 만큼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다. 마침, 영국 외무성 해외개발부에서 낸 취업 인터뷰 공고에 왕복 교통비 제공이라는 문구가 눈에 쏙 들어왔다. 먼저 학장의 추천서가 필요했다. 면담하러 갔을 때 골롬반 신학교 출신의 학장은 마이클에게 이렇게 물었다. “자네, 한국에 골롬반 선교사로 나간 패트릭 맥글린치(故 임피제) 신부가 목장을 하고 있는데 수의사가 필요하다는군. 혹시 생각이 있는가?” 한국은 처음 들어보는 나라였고 외국에서 일할 생각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더블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추천서를 받으려면 학장님을 기쁘게 할 대담이 필요했다. “네,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본심과 달리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는 결국 수의사가 되자마자 제주도 성 이시돌 목장으로 오게 되었다. 그의 나이 스물넷 일 때였다. 2년 기한으로 왔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웬지 귀국을 자꾸 미루고 싶었다. 그새 제주도와 정이 많이 든 것이다. 누구네 소가 새끼 낳는 것만 받아주고 가지 뭐, 부활절 지나고 갈 거야..., 이런 저런 핑계를 대다가 동생 결혼식에 맞춰 돌아올 거 아니면 아예 오지 말라는 어머니의 최후통첩을 받고서야 아일랜드로 돌아갔다.

그리고 곧장 골롬반회에 입회하였다. 제주도로 꼭 다시 오고 싶은데 어떻게 올까 하다가 선교사로 오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는 이시돌 목장에서 소와 돼지와 양을 돌보는 사이 예수님과 아주 친하게 되어버렸다. 물론 태어나기 전부터 신자였지만,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과 정말 친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다. 예수님더러 ‘떡보요 술꾼’(마태 11,19)이라고 했다는 대목도 그를 끌어당겼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제주 성 이시돌 목장에서





사제가 되어 한국에 파견된 후 첫 사목지였던 서울 신림동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신 분이잖아요.” 나중에 한국지부에서 성소 담당을 맡았을 때 이어돈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신앙은 교리나 윤리로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제주도에서의 경험만이 사제의 길로 데려간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딱 한 가지지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그 바탕에 깔린 거지요.” 수의대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암 투병 중이었는데 날마다 교수님을 찾아가 병문안을 했다.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졸업하면 아일랜드에 머물지 말고, 해외로 나가 다른 문화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구나. 시야가 한층 넓어질 거야. 설령 아일랜드로 돌아온

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 충고 역시 그를 움직이게 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먼 나라로 가서 알지 못했던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의 삶을 살아보라는 말씀이었을지도 모른다.

1986년에 사제품을 받은 이어돈 신부는 그해 8월에 서울에 도착했다. 그가 신학교에 입학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을 때 당시 지도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반드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우리는 17개 나라로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으니 말이야.” 처음에는 난감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조건을 달 수는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어디든 좋다고 생각했더니 예수님은 그를 한국으로 보내주셨다. 정작 한국에 왔지만 제주도 소임을 받게 된 것은 18년이나 지난 후였다. 빈민사목을 하였고 본당에서 보좌를 맡기도 하였고 신학원 부원장과 영성수련장으로 후배 사제 양성에 힘을 많이 쏟았다. 부지부장으로 지부에서 일했고 로마에 가서 2년간 선교학을 공부하고 오기도 했다. 그동안 제주도에 보내달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다만 제게 주어지는 일을 했어요. 하느님의 부르심에 나의 양심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이지요.” 그는 꼭, 반드시, 이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강박에서 풀려날 때의 자유로움을 떠올려 보라고 권한다. 기꺼이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태도가 두려움을 없게 해 준다고 말한다.

2004년 제주 금악본당으로 발령받아 와서 2025년 1월까지 사목했다. 그러면서 임피제 신부님의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임 신부님의 뒤를 이어 2011년부터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그가 관리를 맡고 있는 협회 안에 성 이시돌 목장, 피정의 집, 요양원, 어린이집 등 여러 기관이 있다. 제주도의 전설인 임피제 신부님의 후임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분만큼 일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하하하”



2014년 아일랜드 대통령 특별 공로상을 받은
故 임피제 맥클린치 신부와 함께



성 이시돌 요양원에 들러 어르신과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한 일과이다.

그가 겸손하게 웃지만,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는 제주도에서 사는 삶이 행복하다. 그에게 제주는 그냥 고향 같은 곳이다. “행복이란 와! 좋다. 신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늘 마음에 있는 것이지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편안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행복이에요.”

이어돈 신부는 바리사이들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제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마르 2,27)라고, 평생을 함께해 온 친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 것이다. ✠

주임으로 사목했던 제주 금악본당에서 신자들과 즐거웠던 한때



첫걸음을 내디디며

곽범주 세례자 요한 신학생

제주교구 김기량성당 출신이며, 올해 성골롬반외방선교회에 입회하였다. 작년 3월부터 '성소 동반 프로그램' 과정을 거친 뒤, 올해 7월에 한국을 떠나 필리핀에 있는 골롬반회 국제신학원에 들어갔다. 골롬반 사제가 되기 위한 약 10년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구 예비 신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성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즈음, 그동안 준비해 오던 교구 성직의 길이 정말 저에게 맞는 길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은 다양하시므로 저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기도와 성찰을 거듭하였습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는 본당에 골롬반회 심홍석 암브로시오 새 사제를 보좌 신부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신부님을 통해 성골롬반외방선교회와 선교 성소에 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에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갈망을 느꼈고, 이 갈망 안에서 선교 성소를 발견하고, 이후 성골롬반



필자는 사목 현장 실습으로 매주 노숙인 무료 급식소 '토마스의 집(왼쪽)'과 이주민, 난민과 더불어 일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집'에서 활동했다.



주민들과 연대하여 환경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JPIC 담당 함 패트릭 신부를 따라 삼척을 방문했을 때

외방선교회의 성소 식별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저는 서울로 올라와 한국지부 본부에서 골롬반 신부님들과 생활하며 "성소 동반 프로그램" 과정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에 공동체 생활을 배우고 영성 지도를 받으며, 영어 공부와 신학교 입학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두 번 사목 실습 현장에 가서 활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주민과 난민, 쪽방촌 주민, 노숙인, 그리고 그들을 동반하는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제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멀리 있는 나라로 떠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양성을 받으면서 선교는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러 가는 일이 아니라, 먼저 선교지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데서 시작됨을 조금씩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모든 시간은 주님 안에서 저 자신을 보다 더 알아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차례 평가를 거치고,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골롬반회 국제신학원의 양성 과정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온 골롬반 신학생들과 함

께 지내면서 마닐라에 있는 로올라 신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골롬반 공동체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선교사의 삶을 깊이 배우고 성소를 계속해서 식별해 가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더욱 구체적으로 응답하려고 합니다.

물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떠올리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의 한 가르멜 수도회 수녀님 말씀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해낼 힘도 함께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단계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고 하신 골롬반 성인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앞으로 펼쳐질 삶 안에서도 하느님의 도구로서 충실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제가 성소의 길을 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멀리서 늘 기도해 주시는 제주 김기량본당 공동체와 골롬반회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소의 여정 안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희망하는 젊은이들입니다

솔랑헤 카타리나 푸엔테 곤잘레스
Solange Catalina Fuentes Gonzalez

본회 조성근 제노비오 신부와 성요셉 요셉 신부가 사목하는 칠레 산티아고 성 마티아스 본당에서 주일학교 교리교사로 봉사하는 20대 청년이다.

칠레 청년들은 클릭 한 번이면 방대한 정보와 새로운 기회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대이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저 는 또래의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싶어 저마다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18세~28세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화하면서 비슷한 고민, 희망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화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는 '안정'입니다. 치솟는 생활비,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힘든 상황,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취업한 청년들은 노력에 비해 급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소득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다 보니 저축이나 미래 준비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토로합니다. 학생들은 졸업을 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신입사원 자리조차 자기들이 아직 갖추지 못한 자격이나 경력을 요구받는 현실에서,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구인 공고를 계속 접하다 보면 자기에 대한 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칠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세대인데도, 사회에 나가기에 부족하다는 자기 인식이 첫 직장을 찾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독립, 집 마련, 결혼 같은 삶의 목표를 어렵지 않게 이룬 부모 세대와 달리 우리는 이를 장기 목표로 삼아야 할 만큼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청년들과 대화에서 주목하게 된 주제는 정신 건강입니다. 자신과 가족,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최근 칠레에서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적절한 치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부담, 공공 의료 시스템 한계(역주: 칠레는 공공 의료와 영리 의료 사이에 서비스 격차가 큼)는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그럼에도 저와 대화했던 젊은이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힘든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교육, 노력, 혁신에 기대를 걸고

본당의 교리교사 카타리나에게 칠레 청년의 고민과 희망에 대한 글을 부탁하여 받아 읽으면서, 전쟁과 기후,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어려움이 여기 칠레 청년들에게도 큰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극심한 개인주의는 청년들을 더욱 고립시킵니다. 지역 사회에서 공동체 정신은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이기주의가 사회 안전망을 해치고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계획하는 데 좌절을 경험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막연히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칠레 청년들은 특유의 낙천적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하며 희망을 찾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신앙 공동체의 역할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는 것은, 청년들이 스스로를 사랑하도록 도와줍니다. 현실적인 한계에도, 하느님을 체험하고 봉사와 나눔과 연대를 경험하는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이곳 선교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번역 · 성요셉 요셉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칠레 산티아고 성 마티아스 본당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인지하고 적응하려는 강인한 세대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업, 개인 프로젝트 개발, 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 찾기 등 우리는 자기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가는 세대이다."라고 답한 이도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삶, 만족스러운 직업, 가족 및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여행, 개인적인 프로젝트 개발, 건강한 신체·정신 유지 등이 우리의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저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더 큰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가톨릭 청년들은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복돋습니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며 돕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 젊은이들입니다." 어느 청년이 제게 한 이 말에서 우리 모두가 품은 앞으로 나아갈 힘과 희망을 확인합니다. ✠

골롬반 선교사들과 함께 봉사하는 칠레 청년 카타리나 씨(맨 왼쪽)가 첫영성체 교리반을 맡아 본당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전 고르넬리오 신부의 삶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옥 벨라도 신부의 추모사(故 전 고르넬리오 신부 장례미사, 7월 2일, 아일랜드 달간파크) · 정리 편집실

신학교 시절에는 두 학년 선배였던 신부님과 서로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파견되고 첫 본당 발령을, 마침 두 번째 언어 연수에 들어가게 된 고르넬리오 신부님의 후임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의 연수가 석 달 뒤로 미뤄져 신부님은 본당에 당분간 남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 신부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렀던 저에게 신부님은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쟁 통에 무너진 다리가 복구되지 않았을 때라 강 속으로 건너다녀야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 우리가 탄 지프차가 강 한가운데 빠져 엔진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두 시간쯤 기다린 끝에 지나가던 목재 운반 트럭이 우리를 끌어내 주었고, 우리는 그날 밤을 새워 엔진 장치를 말려야 했습니다. 그 일은 '선교지의 삶이란 이렇구나' 하는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소를 방문하러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전

신부님은 파견되고 처음 15년을 북한과 접한 강원



본당 신자들과 함께한 회갑연



사랑의 선교 수사회 미사 때(2018년 아일랜드로 귀국하기 전)



조선희 필립보 신부를 보좌하며 춘천교구 홍천 본당에서 사목했을 때(1967년)

도 산악 지역에서 사목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아 나라는 아직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 시절 본당사목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 넓은 지역을 다니며 공소와 신자 가정을 가려면 지프차가 필수였습니다. 겨울에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산길을 달려야 했고, 여름 홍수에 비포장길은 잠기곤 했습니다. 신부님은 더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 일하면서도 기쁘게 사목하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곁에 있었으며, 특별히 병든 이들에게 깊은 연민을 가졌습니다.

약 50년 동안 신부님과 대부분 같은 교구에서 사목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바라본 신부님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가까이 두고,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절な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매우 조용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했고, 즉흥적으로 말을 내뱉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했기에 그의 조언은 늘 현명하고 판단도 그러했습니다. 신부님은 또,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정말 많이 알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제가 새로운 소식을 듣고 전했을 때 신부님은 늘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어제 들었는데. 아니면 그저께?”

* 고인의 약력은 35쪽에 있습니다.

고르넬리오 신부님은 한국에서 보낸 57년 가운데 대부분을 본당사목에 헌신하셨습니다. 단 3년 동안만 당시 춘천에 있었던 성심여자대학의 교목으로 일하셨는데, 그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고르넬리오 신부님도 서울, 인천, 성남 등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비신자 교리, 세례와 견진성사, 신앙 교육 일이 끊이지 않았고 그 모든 일에 깊이 헌신하셨습니다. 신자 수가 급증하면서 성당과 부속 건물을 짓는 일도 신부님은 매우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해 내셨습니다. 외부 미사든 회의든 그 장소에 미리 가서 길을 확인할 정도로 꼼꼼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신부님이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쉽사리 내색하지 않았고, 불평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번 병이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부님의 삶을 선물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고통이 끝났음을 함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선교사이자 골롬반 회원, 믿음의 사람과 작별을 고하며,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

우리 가족 곁에 골롬반 선교회

유정희 루치아 후원회원



옥 벨라도 신부가 필자의 할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 필자의 친정을 방문해 세례식을 했던 날

저는 1987년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시고 친정어머니께서 스스로 성당을 찾아가 예비자 교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신부님이 서양 사람인데 참 좋은 분이시라면서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본당신부님은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옥 벨라도(한국 선교 55년, 현재 아일랜드) 신부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60대 중반에 인천 만수1동성당에서 안나를 세례명으로 옥 신부님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연로하신 제 할머니와 몇 해 전에 뇌출혈

로 쓰러졌던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많이 지쳐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당에 다니시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지내셨습니다. 얼마 후에는 레지오 단원들이 아버지를 위해 방문 교리를 해 주었고 아버지가 기도문을 잘 외울 수 있도록 벽에 크게 써 붙여 주며 열심히 협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옥 신부님은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집으로 오셔서 아버지만을 위해 안드레이로 세례식을 거행해 주셨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서는 연세가 많아 어린아이와 같으시다며 유아 세례를 즉석에서 주셨습니다. 할머니 마리아는 일주일 후 94세로 하느님 품에 안기셨는데 주무시듯 너무나 편안하고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옥 신부님은 성당을 짓느라 고생하시고, 완공 후 다른 본당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무척 섭섭해하셨던 어머니는 시간이 지난 후 신부님을 뵈러 다녀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옥 신부님이 새 임지에서 성당을 짓느라 고생하신다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4년 후 아버지도 할머니 뵈러 하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때는 옥 신부님께서 고생하며 마련하셨던 성당 영안실에서 편히 장례 지내고 성전에서 장례미사를 드렸습니다.

일 년 후에 저는 구파발성당 구역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골롬반회에서 오셔서 성골롬반

외방선교회가 하는 일을 홍보하면서 후원회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남편 이름으로 후원회에 가입하고, 『골롬반선교』 잡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잡지를 읽고 골롬반회가 일제강점기부터 오셔서 고난을 겪고 6·25 때는 순교하신 신부님들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파발성당에 신오복 신부님(현재 아일랜드), 올 3월에 한국에서 선종하신 안광훈 신부님, 전요한 신부님(현재 아일랜드)이 자주 오셔서 미사 집전을 하셨습니다. 관공성사 때도 골롬반 신부님들이 오셨습니다. 2009년에는 골롬반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때 아일랜드 본부 달간파크에도 방문했는데, 때마침 그곳에 와 계신 옥 신부님을 뵈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마치 어머니가 만나신 것처럼 반가워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2015년에 하느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어머니 장례미사도 인천 만수1동성당에서 했습니다. 골롬반 선교회는 우리 가정 안에 깊이 함께하셨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골롬반회를 처음 만나고 지금까지 후원회원으로서 함께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예전에 후원회 월례미사에 가면 자주 뵈었던 신부님들께서 하느님 품으로 올라가셨고, 연로하신 신부님들께서는 고국으로 가셔서 뵈 수 없으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언어와 문화, 의식주 어느 하나 고국과 일치하지 않고, 전쟁 후 가난했던 나라에 오셔서 일생을 희생 봉사하신 선교회의 모든 신부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하신 신부님들과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신부님들께 하느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날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

필자가 후원회원들과 아일랜드 달간파크를 방문해 한국에서 선교했던 사제들을 만났을 때(2009년)





문의



CMS 자동이체 신청, 납입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 거부 등 문의는 홈페이지 <후원회에 문의하기> 또는 해당 지역 후원회로 문자나 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26년부터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시작합니다. 본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동안 자체 양식으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면 등록하겠습니다. .

-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 메뉴-후원회에 문의하기
-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02-929-1366
이메일: ksfund@columban.or.kr
-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062-371-5824
이메일: kjfund@columban.or.kr

지로 납부 회원님들께

4월에 보내 드린 지로는 27년 6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CMS자동이체, 온라인 납입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사 신청



미사 신청은 서울 후원회(02-929-2977)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세요.

서울(본부) 강의 및 월레미사

강의: 오후 2시
미사: 오후 3시 10분

9월 18일(금)	강의 “시기하는 자”
10월 30일(금)	야외미사 <화현 이벽 성지>
11월 27일(금)	강의 “시기받는 자”
12월 18일(금)	송년미사와 친교 나눔



강의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

전국 후원회 월레미사

26년 9월 ~ 26년 12월

지역별 상황에 따라 미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석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
온라인
신청



일시후원
온라인
신청



후원회
카카오톡
채널



	9월	10월	11월	12월	장 소	문 의
서울(명동)	4일	2일	6일(피정)	4일	명동 가톨릭회관	02-929-2977
서울(본부)	18일	30일 (야외미사)	27일	18일	돈암동 본부	02-929-2977
인천	8일	13일	10일	8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9일	14일	11일	9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11일	9일	13일	11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3일	23일	27일	23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15일	27일	24일	-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16일	23일	25일	-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17일	29일	26일	-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18일	30일	27일	-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10일	-	-	10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16일	21일	18일	16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15일	-	17일	-	서귀 북자 성당	064-733-5523
	-	20일	-	15일	서귀포 성당	064-762-3444

- 9월 추석, 12월 성탄절로 일정 변경 서울(본부) 한 주 앞당겨짐 / 하안 이틀 앞당겨짐
- 서울후원회 야외미사 10월 30일(금) 화현 이벽 성지(경기도 포천) - 선착순 신청
- 서울(명동) 후원회 무료 피정(파견 미사와 안수)
11월 6일(금) 오전 10시~오후 4시(명동 가톨릭회관 1층)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 주셨고 너의 자선을 기억하고 계시다”(사도 10,31).
- 안산 10월 9일(한글날) 미사 있음
- 목포, 순천, 전주, 광주
10월 피정(순천은 본당 사정으로 한 주 앞당겨짐), 12월은 미사 없음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골롬반 소식

노아곰 신부 한국 선교 마치고 귀국

노아곰 신부가 한국인들과 동고동락했던 62년 세월을 가슴에 담고 4월, 아일랜드로 돌아갔습니다. 노 신부는 광주대교구, 원주교구, 인천교구, 제주교구 본당 열한 곳에서 사목했고, 칠레에서 한인교포사목을 했습니다. 후원회 초창기 10년간 선교 홍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장성의 시골 마을에서 농사지으며 병원사목과 이주민사목 등을 하였고, 귀국하기 전 4년 동안은 제주에서 후원회원과 이주민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청빈한 삶과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노아곰 신부를 항상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곽범주 신학생 입회

제주교구 김기량본당 출신인 곽범주 세례자 요한 신학생이 본회에 입회하여, 7월부터 필리핀 골롬반회 국제신학원 양성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출국을 하루 앞두고 7월 20일, 서울 본부 성당에서 입회자와 FMA를 마친 두 신학생을 위한 감사 미사를 한국 지부장 권세오 곤잘로 신부 주례로 봉헌했습니다. 곤잘로 신부는 곽범주 신학생에게 본회의 배지를 달아주며 환영과 격려를 표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본회 신학생들과 함께 골롬반회 선교사제가 되기 위한 양성을 받고 있는 곽범주 신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글 22~23쪽



골롬반 소식

지광규 신부 말라떼 본당 발령, 석진욱 신부 국제신학원 발령

필리핀지부 지광규 대철 베드로 신부(사진)가 본회 국제신학원 부원장 임기를 마치고, 마닐라 말라떼성당에 부임하여 교우들과 재회하였습니다. 대만에서 활동했던 석진욱 안토니오 신부는 본회 국제신학원 부원장으로 발령받아 필리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신학원은 여러 나라에서 온 골롬반 신학생들이 사제가 되기 위한 양성을 받는 곳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한 두 한국인 골롬반 사제를 기도 중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16~17쪽



제주 후원회, 회장 임명 및 소풍

6월, 제주 골롬반 사제관에서 있었던 후원회 미사에서 제주 후원회 회장으로 김선월 리드비나 후원회원(제주 금약성당)이 임명되었습니다. 7월 22일에는 양창우 요셉 신부가 주례한 후원회 미사를 봉헌한 후 제주 후원회원들과 만장굴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골롬반 선교의 동반자로서 늘 기도해 주시는 제주 후원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뒷줄 왼쪽 김종근 도밍고 신부, 가운데 양창우 요셉 신부, 바로 오른쪽이 신임 제주 후원회장

FMA 마친 김진욱 · 노승준 신학생 신학원 복귀

김진욱(사도 요한) 신학생, 노승준(요한 바오로) 신학생이 첫 해외 선교 실습(FMA, First Missionary Assignment)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각각 파키스탄과 칠레에 파견돼 약 2년 동안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선교지의 문화와 언어, 신앙을 배웠습니다. 지난 여름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짧은 휴가 시간을 보내고, 7월, 필리핀 국제신학원으로 돌아가 남은 신학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신학생



노승준 신학생

서울 후원회 영성 강의, 열띤 참여 속에 열려

서울 후원회 월례미사가 있는 날에는 영성 특강을 마련합니다. 4월에는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사진)가, 수면 중 꾸는 꿈을 들려보내지 않고 기록함으로써 자기 갈망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바라보도록 안내했습니다. 5월에는 피지에서 선교하는 정의균 가롤로 신부가, 6월에는 대만 선교를 마친 석진욱 안토니오

신부가 각각 선교지 생활을 들려주었습니다. 8월에는 <함께 가꾸는 정원 '공동체의 캔버스'>를 주제로 안재선 제이슨 신부가 미술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하반기 일정은 30~31쪽에 있습니다. 무료 영성 특강과 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골롬반 소식

사제수품 희년 맞은 사제들을 위한 미사

성모승천대축일에 아일랜드 달간파크에서 사제수품 희년을 맞은 사제들을 위한 미사가 있었습니다. 축하를 받은 사제들 중에는 한국에서 선교했고 올해 수품 60주년을 보내는 천 말라기 신부, 진 놀먼 신부, 구 파트리치오 신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본당사목과 『골롬반선교』 초대 편집장을 했던 천 말라기 신부는 강론에서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깊이 느끼며 감사해 온 시간이었으며, 도전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함께 계셨다. 또한, 친절을 베풀어 준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감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성소 모임에 초대합니다

매달 첫째 주일, 서울 골롬반 선교센터에서 성소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 나눔 및 강의-개인 면담-미사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첫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신학생들의 선교 체험 등 선교사들의 좌충우돌 적응기를 들려주면서 주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에 더 잘 귀 기울이도록 성소 담당 사제가 동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골롬반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vocation@columban.or.kr로 문의하시면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립니다.



안재선 제이슨 신부의 미술 전시회

미술사목을 하는 안재선 제이슨 신부가 8월 24일~9월 5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카페 산다미아노(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육화>를 주제로 미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주일 복음을 묵상하며 그려왔던 ‘그림 강론’ 작품을 전시한 제이슨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참으로 온전히 인간이 되신 육화의 신비를 탐구하는 시간이었다”면서, “하느님을 경험하고 표현하며 만나는 자리인 우리 몸의 그 본래의 선함을 다시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초대의를 말을 전하였습니다.



한국지부 홈페이지 개편

9월 10일, 새로워진 홈페이지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을 수정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미사 신청, 후원회 가입, 기부금 영수증 신청, 대관 신청 등 기능을 추가하였고, 골롬반회의 다양한 선교 콘텐츠를 쉽게 찾아 보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국지부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해 주세요.

www.columban.or.kr



골롬반 소식

전 고르넬리오 신부 선종



1936년 4월 3일 아일랜드 코크 출생
1960년 12월 21일 사제 수품
1961년 11월 한국 도착
1962년~1981년 원주교구 형성, 춘천교구 죽림동·홍천·철원·양양·교동 주임, 춘천 성심여자대학교 학생지도
1982년~1985년 광주대교구 목포 연동 주임, 수원교구 성남 상대원 주임
1986년~2004년 인천교구 고잔동·가정동·오정동 주임, 의정부교구 호평동 주임
2004년~2018년 서울 본부
2018년 6월 아일랜드 귀국
2026년 6월 29일 선종

57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한 전 고르넬리오 신부(Cornelius Murphy)가 6월 29일 아일랜드에서 향년 90세로 선종하였습니다. 춘천교구와 인천교구를 비롯한 7개 교구에서 주로 본당사목을 하였습니다. 7월 2일 아일랜드 달간파크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한 후 그곳 성 골롬반 묘원에 고인을 모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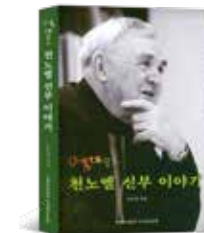
한국지부에서는 추모미사를 7월 10일 오후 4시, 서울 본부에서 부지부장 양창우 요셉 신부 주례로 봉헌했습니다. 이 미사에서 인천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춘천교구장 김주영 시몬 주교가 본회에 보내온 추모 메시지를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 고르넬리오 신부의 따뜻한 미소를 오래도록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충실한 사제 전 고르넬리오 신부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관련 글 26~27쪽



전 고르넬리오 신부 추모미사

천노엘 신부 1주기 미사와 평전 봉헌



6월 1일, 천노엘 신부 1주기 추모미사가 담양성직자묘원에서 봉헌되었습니다. 무지개공동회 대표 윤근일 요셉 신부(광주대교구) 주례로 골롬반회 오수성 미카엘 신부와 광주대교구 사제들을 비롯해 300명 가까운 엠마우스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미사에서는 천노엘 신부의 삶을 담은

평전 『엠마우스 천노엘 신부 이야기』(권은정 씀/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를 주님께 봉헌하는 예식이 마련되었습니다.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며 복음 말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를 삶으로 실천했던 천노엘 신부의 뜻을 되새긴 날이었습니다.



천노엘 신부 1주기 미사

“해외선교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7월, 필리핀에 있는 골롬반회 국제 신학원으로 떠난 본회 신학생을 위한 감사 미사를 봉헌했을 때,
(왼쪽부터) 한국지부장 권세오 곤잘로 신부와 세 신학생 노승준 요한 바오로, 광범주 세례자 요한, 김진욱 사도 요한,
그리고 필리핀에서 이 신학생들의 양성 동반을 하게 된 석진욱 안토니오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35세 이하 젊은이
때 매월 첫째 주일, 10시 30분
곳 서울 골롬반선교센터 2층

*참석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
vocation@columban.or.kr

사제 성소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주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이애리사 엘리사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지원사제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해외선교를 희망하는 교구/수도회 사제 대상)
010-9937-0901 nameire@g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